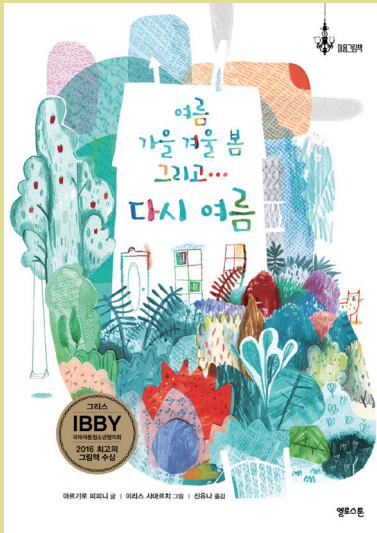




어느 버려진 집에 갇든 두 번째 여름

여름 가을 겨울 봄 그리고... 다시 여름

아르기로 피피니 글/이리스 사마르치 그림/신유나 옮김

계절처럼 다시 찾아오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림책 집을 잃은 사람들, 사람이 떠난 집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시간의 흐름 따라 계절이 바뀌듯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도 영원하지 않아서 누구에게나 힘든 계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여름이 지난 다음 여름은 또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계절이 순환하듯 행복은 또 찾아옵니다. 《여름 가을 겨울 봄 그리고... 다시 여름》은 집을 잃었거나 사람을 잃었거나 또는 첫 번째 기회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풍요로웠던 여름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책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버려진 집처럼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떠도는 난민 또는 이민자들, 나이 들어 홀로 삶을 보내는 노인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여름 가을 겨울 봄 그리고... 다시 여름》 그림책을 보며 함께 행복해지고 서로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활동을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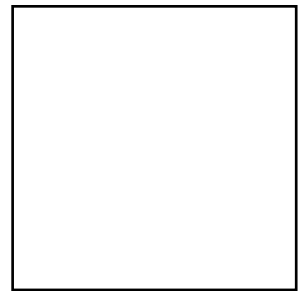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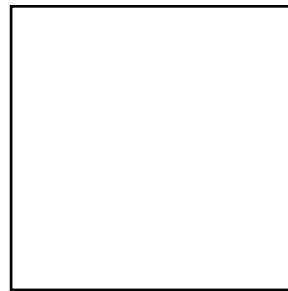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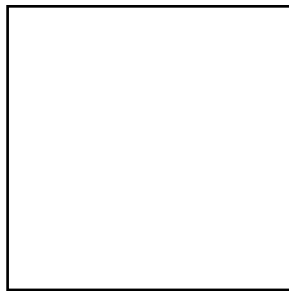
주제 : #행복 #가족 #난민 #다문화 #기회 #꿈 #희망

학년 대상 : 초등 중학년 • 고학년



앞서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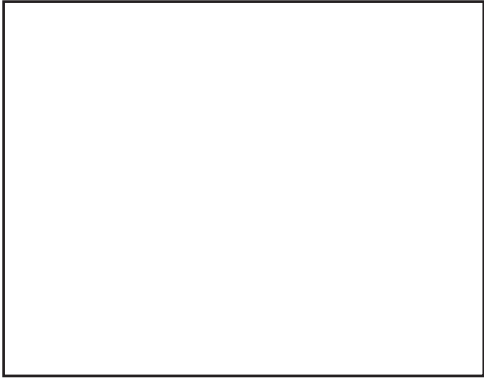
나의 집과 가족을 그려 보고 행복했던 일을 적어봅니다.



깊이 생각해보기

다음을 읽고 생각한 다음 그리거나 글을 써보세요.

☆ 최근에 가족을 잃은 친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부모가 이혼했거나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가 세상을 떠났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한국에 온 친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나의 집에 대해 생각해보고 집을 떠난 그 친구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 그림책에 나오는 집과 가족처럼 서로 행복을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봅니다.